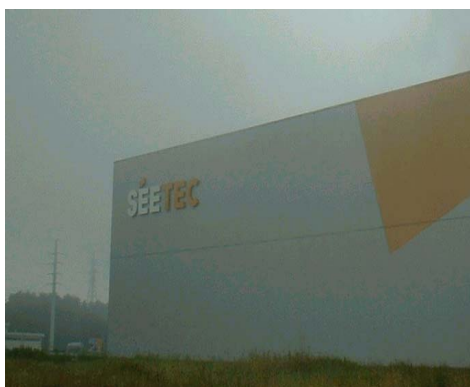


송년특집 - 2003년 화학산업 10대 뉴스④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 현대석유화학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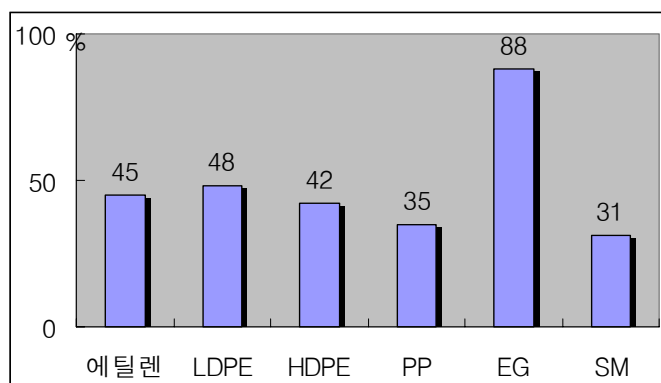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막대한 설비투자를 통해 석유화학산업계의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부채덩어리의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던 현대석유화학은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화학산업계의 우려 속에서도 결국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25일 최종 결정한 매각조건에서 현대석유화학의 대산공장 제1공장과 제2공장의 HDPE, LDPE, PP(Polypropylene) 3품목에 대해 1년6개월 안에 설비, 영업, 관리 등 관련사업 일체를 양사가 각각 분할하고 영업에 관한 사항은 현대석유화학의 주식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할 것을 명령했다.

LG-호남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면 에틸렌은 생산능력이 250만톤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45%에 달해 1위로 올라서며, LDPE는 90만2000톤으로 시장점유율 48%, EG는 88만5000톤으로 88%, 그리고 SM은 230만톤으로 31%를 차지하게 된다.

현대 인수 후 LG-호남의 시장점유율



유화학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LG 독점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해 화학산업 관계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대석유화학과 비슷한 처지였던 삼성종합화학은 대규모 외자유치에 성공하며 새출발했다.

삼성종합화학은 2003년 4월 세계 4위의 화학기업인 프랑스 TotalFinaElf 계열의 Atofina와 외자유치 본계약을 체결한 뒤 8월 삼성Atofina로 새출발해 현대석유화학과 운명이 엇갈렸다. 다만, 삼성Atofina의 경영권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방이 주목된다.



<Chemical Journal 2003/12/22>